

대학도서관 공간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Method of Spaces on the University Libraries

정재영(Jae-Young, Chung)**

< 목 차 >

I. 서론	1. 시설 측면
II. 대학도서관 공간 활용 전략의 필요성	2. 장서 측면
1. 대학도서관 이용환경의 변화	3. 사서 측면
2. 전략적 대응방안으로서 공간의 변화	4. 이용자 측면
III. 대학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V. 공간활용을 위한 고려요소
IV. 공간활용의 문제점 분석	VI. 결 론

초 록

최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신축 및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기기 활용공간, 스터디룸 등의 열람공간, 영화감상실 및 전시실 등과 같은 문화적 기능 수행 공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휴게공간의 확충 및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간의 확보 및 제공에 치중하는 것과는 달리 오프라인 서비스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서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위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도서관 공간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대학도서관의 학문적 성격을 감안하여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복합학습공간'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 장서의 활용방안 그리고 사서의 역할 및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 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 공간활용

ABSTRACT

Building a new library and remodeling an existing library for the multi-cultural space is a recent trend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at is, the spaces for using the digital and multimedia equipments, the rooms for reading and studying, the spaces for the cultural activities such as watching movies and holding an exhibition, and the spaces for the communication and refreshment are increasing in the libraries.

However, this movement of securing and providing the new spaces is not closely connected with the off-line services and happen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how to change the librarian's role and position.

Therefore, the university libraries need to plan and provide the multi-learning space rather than the multi-cultural space considering the university library is an academic organization. Additionally,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user's need, utilization method of books and considering the librarian's roles and placement are necessary in planning and providing the space of the libraries.

Keywords: University library, Library space, Newly building and remodeling, Use of the space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관리운영팀장(jaeyoung@sogang.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1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7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량가나단은 도서관을 성장하는 유기체(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도서관도 계속 성장해 가는 조직이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직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대학도서관에 적용하면, 대학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과거의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와 변화되는 정보환경을 기초로 미래를 창조 할 수 있는 요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의 중요성이 당연시 되어온 시대에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도서관이 내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발전과 성장이 없으면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화를 주장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도서관은 이용자의 행태를 반영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축하는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고민은 건물의 변화를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¹⁾

고수영의 이와 같은 주장은 도서관이 처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및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공간 확보의 문제는 최근 대학도서관이 처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양과 함께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감안한 역할의 다양화에 따라 공간부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수의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디지털자료의 증가 및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도서관이 교내 연구 및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득권이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호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고수영,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 및 과제,"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9호(2010), p.16.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은 개인용 도서관(Personal Library)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고 방문자를 기다리는 도서관과 괴리가 있다.²⁾

둘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1950년대와 60년대 준공된 대학도서관 건물이 약 50여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더 이상 늘어나는 장서를 감당하거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도서관내에 새로운 역할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전자자료의 증가와 다양한 디지털기기 증가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졌다. 즉, 기존의 도서관 공간구성으로는 디지털시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및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 및 성향변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성향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대형서점이나 북카페 등과 같은 책을 매개로 한 타 주체들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공간구성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 및 멀티미디어 기기의 활용공간 확대, 캐럴, 스터디룸 등과 같은 열람공간, 음악감상실, 영화감상 공간, 전시장 등을 비롯한 문화적 기능 수행 공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의 형태로 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다. 물론, 공간 활용의 변화는 시대적인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간의 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정체성, 기능 및 목적과 일치되는지, 그리고 방향은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 역할의 확대와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 및 공간구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방향성을 점검하고 공간의 변화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경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도서관의 필수 구성요소인 시설, 장서, 사서, 이용자의 기준에서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상호, “도서관,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9호(2010),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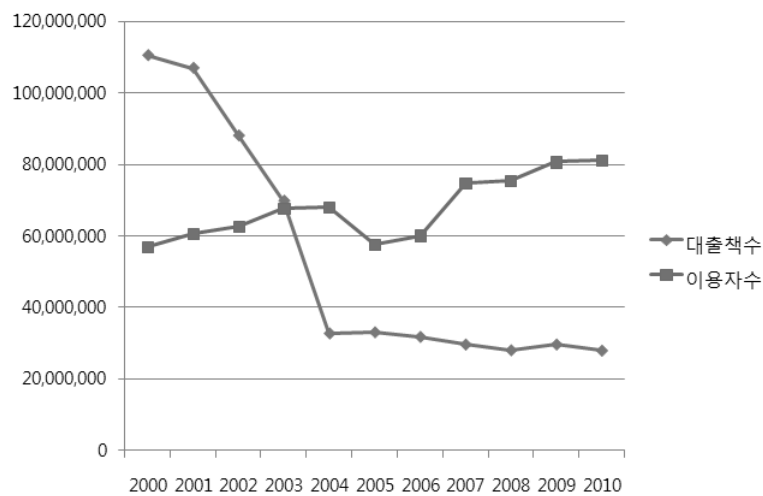
II. 도서관 공간활용 전략의 필요성

1. 대학도서관 이용환경의 변화

이용자요구의 다양화와 정보매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모기관인 대학당국의 변화속에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전자매체의 구입 및 활용도의 증가에 따라 시설 및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물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당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건축정책에 따른 조직의 슬림화 및 다운사이징의 결과에 따라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이용자 수의 감소와 도서 대출량의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³⁾과 같다.



<그림 1>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대출권수 및 이용자수 변화추이

즉, <그림 1>과 같이 2000년대 들어 대출권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자자료의 증가와 디지털기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쇄자료의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2010).

많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도서대출량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권수를 상향조정하는 사례⁴⁾도 늘고 있다. 즉, 신분별 대출권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출권수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이용 증가와 서가 공간 부족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수 감소의 경우 2000년대 중반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학도서관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제공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내부에 디지털자료의 활용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였고,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확보 및 활용 공간의 제공은 괄목한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학도서관의 컴퓨터 단말기 제공대수를 보면 통계수치에 이용자용뿐만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대학도서관 1인당 컴퓨터 보유 현황

대학도서관명	재학생수 (학부생+대학원생)	PC수	PC 1대당 재학생수
연세대학교학술정보원	26,751	973	27
고려대학교도서관	29,328	959	30
서강대학교도서관	11,981	271	44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21,246	384	55
성균관대학교학술정보관	36,136	803	45
중앙대학교도서관	18,557	309	60
한양대학교백남학술정보관	23,962	411	58

* 한국도서관기준 중 대학도서관기준 - 재학생 100명당 1대 이상 확보⁵⁾
 * 대학별 데이터는 사대도협 회원교편람을 참고하였음⁶⁾.

위의 〈표 1〉과 같이 컴퓨터 1대당 재학생의 수가 평균 45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도서관의 공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도서관내 전자매체 및 전자기기를 위한 시설이 전체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S대학도서관의 대출권수 조정 안내, 〈http://library.sogang.ac.kr/bbs/content/1_800?pn=17&〉 [인용 2012. 4. 23].
 K대학도서관 대출권수 조정 안내, 〈http://library.korea.ac.kr/bbs/content/100_48966〉 [인용 2012. 4. 25].
 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54.
 6)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1 회원교편람(서울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1).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대출량 감소 및 이용자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비롯한 정책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디지털환경의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2. 전략적 대응방안으로서 공간의 변화

최근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는 크게 물리적 노후화와 시대적 노후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노후화는 각종 부위의 노후화 및 구조체, 내·외장 등의 노후화를 가리키며, 시대적 노후화는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준의 향상과 기술 혁신 등을 의미한다⁷⁾.

이중에서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공간 및 장소, 그리고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노후화는 대학도서관 이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축 및 리모델링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Bennett은 도서관 공간에 대하여 독자 중심의 패러다임(Reader-Centered Paradigm)에서 도서중심의 패러다임(Book-Centered Paradigm)으로 그리고 이후 학습중심 패러다임(Learning-Centered Paradigm)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⁸⁾, 도서관의 역할이 정보저장소(information repository)에서 새로운 지식습득공간(learning enterprise)으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전후 공간구성변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리모델링 이후 공간배분에 있어 참고자료실과 전자정보실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12개 대학도서관 게시판에 등록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서, 정리, 열람, 정보서비스, 전산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열람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도서관 환경에 관한 사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즉,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보다도 이용에 따른 편의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전후의 이용률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신축 및 리모델링 이후 다음 <표 2>¹¹⁾와 같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7호(2007), p.108.
8) Scott Bennett, “Libraries and Learning: A History of Paradigm Change,”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Vol.9, No.2(2009), p.194.
9)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 전계논문, p.116.
10) 성기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p.57.

〈표 2〉와 같이 H대학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 이전에 연간 1,212,883명의 이용수를 보이던 것에 반해 리모델링 이후 1,691,271명으로 39.44%의 이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K대학도서관의 경우 신축(또는 리모델링) 이전에 3,500,000명의 이용수를 보였으나, 신축(또는 리모델링) 이후 6,981,280명의 이용수를 보이며 99.46%라는 기록적인 이용률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S대학도서관의 경우 77.72%, Y대학도서관의 경우 20.49%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한 모든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신축 및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 도서관 출입자수 변화 추이

대학도서관	연간 출입자 수 통계		증감률(%)
	신축(또는 리모델링) 이전년도(명)	신축(또는 리모델링) 이후년도(명)	
H 대학도서관	1,212,883	1,691,271	+39.44
K 대학도서관	3,500,000	6,981,280	+99.46
S 대학도서관	1,018,647	1,809,299	+77.62
Y 대학도서관	4,232,614	5,099,931	+20.49

이와 같은 수치의 증가는 도서관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공간의 배분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리모델링 이후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를 위해 도서관을 문화적 공간으로 확대하고 대형 서점과 같은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³⁾.

이용재 등은 국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공간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이용자지향적 공간의 중요성과 함께 학습·연구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⁴⁾.

국외 대학도서관의 이용률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참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해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이용자서비스 공간으로 정의되는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11) 김은지, 이한솔, 최원실,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 확장 및 통합필요성에 관한 연구,” 제1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pp.33-42.
 12)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4호(2009), p.219.
 13) Jeannette A. Woodward, *Creating the Customer-Driven Library : Building on the Bookstore Model*(Chicago, ALA, 2005), pp.9-20.
 14)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2호(2012), pp.142-146.

이하 IC)의 도입을 위한 신축 및 리모델링 이후 도서관 출입자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¹⁵⁾.

고수영은 대학도서관 신축 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존 도서관 업무의 확장 즉, 기존에 공간적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용자와 사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공간개념의 융복합화 즉,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선진 정보기술 활용 등을 통한 기능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쾌적·가변·확장성을 고려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한 도서관 외형의 변화요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IT 서비스의 지능화 즉, 단순한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한층 지능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¹⁶⁾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이와 같이 이용자의 요구에 기초한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이용률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한 이용자공간의 확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실물장서와 가상공간 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도서관의 시설 및 건물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III. 대학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은 <표 3>과 같다.

2003년도에 광주교대도서관과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등을 필두로 2011년까지 많은 도서관들이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간의 확장 및 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p.74.

16) 고수영, 전계논문, p.11.

<표 3>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 신축 및 증축 현황

번호	년도	도서관명	면적(m ²)	층수	예산(억)	기타
1	2003	광주교대도서관	5,620	지하1층 지상3층	25	리모델링
2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24,420	지하1층 지상6층	496	신축
3		조선대도서관	18,408	지상7층	180	신축
4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25,185	지하2층 지상6층	450	신축
5		한성대 학술정보관	11,814	지상6층	108	신축
6		경성대도서관	11,384	15층중 4~9층사용	-	신축
7		동국대도서관	13,500	지하4층 지상4층	160	신축
8	2004	대구가톨릭대학도서관	17,340	지하1층 지상5층	100	리모델링
9		숙명여대도서관	15,650	지상6층	80	증축 + 리모델링
10	2005	영남대도서관	24,003	지하1층 지상6층	200	리모델링
11		고려대도서관	23,382	지하1층 지상5층	440	신축
12	2007	동서대 민석도서관	14,345	지하2층 지상6층	300	신축
13	2008	연세대 학술정보원	33,428	지하1층 지상6층	620	신축
14	2009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23,800	지하2층 지상7층	550	신축
15		중앙대도서관	14,000	지하1층 지상4층	150	리모델링
16	2010	명지대도서관	27,800	지하3층 지상4층	450	신축
17		가천대도서관	2,600	지하1층 지상2층	24	증축
18		성결대 학술정보관	13,167	지하1층 지상6층	220	신축
19	2011	전주대도서관	9,600	지하2층 지상4층	340	신축

이들 대학도서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목적을 살펴보면 '문화와 휴식이 복합된 신개념 도서관의 제공¹⁷⁾', '복합문화공간 및 감성문화공간의 구현¹⁸⁾', '최첨단 IT시설, 복합문화공간, 쾌적한 연구 및

학습공간의 제공¹⁹⁾’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대학도서관의 변화 즉, 공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4>²⁰⁾와 같다.

<표 4> C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후 개선점

구분	내용	비고
열람석 부족	• 열람석의 확충(1,701석 → 3,401석)	이용자측면
일반도서실 접근성	• 대출자료실 개칭 • 3층으로 위치 이동(주 출입구 기준으로 2층)	이용자측면
커뮤니티 공간부족	• 총 11개의 공간 생성, 예약시스템 도입 • 팀스터디룸 6개, 토크룸 3개(24시간 개방), 튜터링룸 1개(교수학습센터전용)	이용자측면
휴게공간부족	•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연구실 등을 이전 • 5-7층에 편의점과 함께 배치함	이용자측면
서가공간부족	• 전체 서가 교체 • 하중 보강을 위한 기둥 추가	이용자측면 운영자측면
출입관리	• 동선 고려, 정문으로 주출입구를 일원화 • 24시간 관리인력배치 • 서문은 고시열람실 전용으로 전환	이용자측면 관리자측면
기 타	• 냉난방시스템 정비 • CCTV, 향온 향습 장치 설치	운영자측면

<표 4>와 같이 이용자요구와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열람공간 및 커뮤니티공간, 그리고 휴게공간의 제공과 이들 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창출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의 확충은 찾아볼 수 없다.

주정준 등은 최근 리모델링을 실시한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은 대부분 전자정보실이나 참고자료실로 전용되었다. 즉, 중앙도서관 내의 열람기능을 도서관 외부로 이관하고 정보제공 및 서비스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둘째, 대부분 1층에 위치하고 있던 사무공간이 공용공간으로 전용되었다. 이는 서비스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1층의 공간을 업무공간에서 로비 및 휴게공간 등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관리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축소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부분과 문화활동, 그리고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공간으로 대체하였다.²¹⁾

17) J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jac.kr/guide/Static.ax?page=Sub6105>> [인용 2002. 4. 17].

18) S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ungkyul.ac.kr/SKLIB/>> [인용 2002. 4. 17].

19) Y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yonsei.ac.kr/main/sub.do?menuCode=0002>> [인용 2002. 4. 17].

20)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 전계논문, p.212.

최근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한 대학도서관의 경우 IC의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도서관 공간 활용 및 서비스의 주체가 도서관에서 이용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서비스 및 디지털 장비에 비해 인적자원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기존에 제공되던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 등 오프라인과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및 신축에 있어 IC 개념의 도입을 통한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간과 서비스

둘째,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과 서비스

셋째, (정보, 질문,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공간과 서비스

넷째, (과제 및 연구수행을 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

다섯째, 학습과 연구를 위한 개인별 성향과 방법이 고려된 공간과 서비스²²⁾

결국, 효과적인 IC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볼 때 공간의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C 개념의 도입을 통해 서비스와 정보, 그리고 전자장비를 한곳에 비치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사서와 서비스 그리고 공간의 효과적인 결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도서관 공간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공간활용의 문제점 분석

1. 시설 측면

‘시설’이 도서관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이 실물 장서의 보존이라는 근본적 목적과 함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서

21)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 전계논문, pp.114-115.

22) Susan Beatty and Peggy White, "Information Commons : Models for eLiteracy and the Integration of Learning," *Journal of eLiteracy*, Vol.2(2005), p.4.

관의 장소로서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서관 설립의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즉, 도서관 기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과 10년 혹은 20년 전 만 하더라도 이러한 4대 요소(시설, 장서, 사서, 이용자)는 기술된 차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역순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²³⁾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도서관의 현실과 고객만족, 그리고 이용자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할 때 건축물과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간의 구성 및 활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Allison Cowgill 등은 대학사회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중요해 짐에 따라, 그리고 정보기술과 학과 수업이 접목되고 컴퓨터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도서관도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⁴⁾

이와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대학도서관 활용과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도서관 공간에 Art Gallery 또는 Museum Space, Conference room, meeting room 등의 다용도 공간과 Snack bar 또는 Cafe 등을 설치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도서관의 본질적 목적과 사서의 역할이 간과될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정보와 인력을 바탕으로 참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이용자서비스 공간²⁵⁾을 의미하는 IC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 물리적인 공유만을 의미하는 Physical Commons에서 가상공간의 서비스를 활용한 Virtual Commons로, 그리고 교내 및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Cultural Commons로 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 교육과 학습의 기능을 연계시킨 Learning Commons를 지향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을 유지하며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공간의 쾌적함을 지향하되 대학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문화적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의 가치 도입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이고 연구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23) 광동철,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 강화 방안,”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2007. 7. 4~6),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24) Allison Cowgill, Joan Beam and Lindsey Wess, “Implementing an Information Commons in a University Librar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7, No.6(2001), p.432.

25)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p.70.

도서관 이용률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레크리에이션이나 휴게 및 전시를 위한 공간과 다목적 건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²⁶⁾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서관 출입자 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 보존 및 연구와 학문의 지원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해야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존립의 의미 또한 유지될 수 있다. 즉, 이용자수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새로운 정보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용자 요구 및 시대적 변화라는 이유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지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2. 장서 측면

미래의 장서정책은 소장 패러다임과 접근 패러다임을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즉, 장서의 보존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이용과 보존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학술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매체의 증가와 접근패러다임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문의 구분이 되는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장서 즉, 핵심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실물장서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수집 및 보존도 중요하다. 즉, 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해 가상 공간을 이용한 자료의 검색 및 이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실물장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장서와 디지털장서 간의 보완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소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및 타 기관들과의 협력과 공동활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화 또는 공간부족이라는 이유와 문화 공간의 제공을 위해 장서가 폐기되거나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지향이라는 명분하에 실물장서가 소외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의 사용과 모바일 검색 등으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검색이 손쉬워짐에 따라 자료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도서관 방문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환경에서도 실물장서의 중요성과 활용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지향하는 디지털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장서의 구비 및 활용방법이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의 구성에 있어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자료의 제공 공간 확보와 함께 실물장서의 적절한 보존과 이용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6) 전명숙, "21세기 도서관, 정보센터 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p.300.

3. 사서 측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물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인쇄자료 및 대출·반납 같은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의 인적 협조가 동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²⁷⁾.

최근 주제전문사서, 리에중사서 등 서비스에 있어 사서의 전문적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이용자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된 대학도서관은 많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디지털기기 중심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사서가 관리자 또는 안내자로의 역할로 비취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역할의 혼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에 대한 재설정일 것이다. 특히, 이용자 공간의 확장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간의 재구성 및 활용 시에 사서의 위치 및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간구성 및 배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사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서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즉, 디지털 자료의 검색과 활용, 디지털 기기 및 프로그램의 활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Megan Oakleaf는 도서관의 서비스가 정보접근(information access)에서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즉, 수업연계 교육, 개별 컨설팅, 온라인 튜토리얼, 그룹 토의,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으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으며, 사서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점차, 이용자의 요구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서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는 정보와 이용자의 직접적 연결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건물의 현대화와 공간의 재구성이 도서관의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서가 이용자의 요구에 해답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이용자들의 검색 및 동선에 참여하고 관여함은 물론 이용자 및 정보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있다.

4. 이용자 측면

이용자가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구비,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적

27) 정재영, 전제논문, p.72.

28) Megan Oakleaf,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 A Comprehensive Research Review and Report*,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0, p.37.

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목적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대출자료실, 그리고 자유열람실,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이용, 복사실, 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 매점 및 휴게실의 방문, 그리고 주제 전담서비스 순으로 조사되었다.²⁹⁾

위 조사는 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매점 및 휴게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용자들이 도서관내 시설 및 공간의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를 도서관에 오도록 유도하고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세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가능한 자연채광을 활용하고 개인별 조명이 가능한 열람 환경,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벽의 색상, 위압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학습 분위기, 사유와 집중을 위한 독자적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협력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도 도서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서관만이 줄 수 있는 공간의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원하는 것이 휴식을 위한 공간과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교내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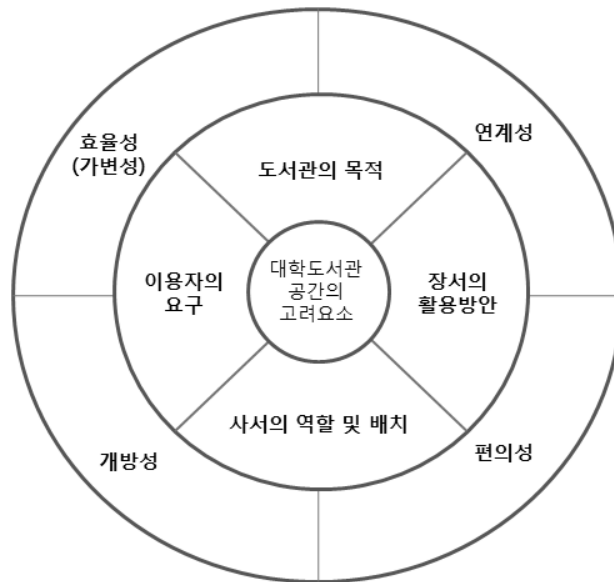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사유의 공간과 이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서관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학도서관들의 문화와 휴식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변화를 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도서관의 노력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적 소통공간(Cultural Communication)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한 문화적 공간의 제공 및 휴게공간의 제공을 통한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기보다 이용자와 정보, 그리고 이용자와 사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 한다.

V. 공간 활용을 위한 고려요소

대학도서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 및 행태 변화, 그리고 정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대학도서관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사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9)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 전계논문, p.213.

대학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학도서관 공간활용을 위한 고려요소

<그림 2>와 같이,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간에 기반한 외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공간배치 및 활용에 있어 가변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계성이란 공간과 공간을 목적에 따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층내 및 층간 연계, 디지털자료와 인쇄자료의 연계, 매체별 공간배치가 아닌 목적별 통합을 통한 연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의 입수부터 열람까지의 처리과정 및 동선에 따른 업무간 연계 즉, 관련 업무나 서비스간 인접관계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편의성은 관리적 편의와 업무적 편의 그리고 서비스적 편의 등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자원의 증가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고려와 이용자의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선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적 편의성에 대한 고려와 건물의 조명, 서가, 색상 등 건축학적 요소 및 출입방법에 대한 물리적 형태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넷째, 개방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도서관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이

용자가 느낄 수 있는 중압감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안 요소의 제거를 통해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건축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의 목적 즉, 도서관의 역할 및 위상 변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시설 및 공간의 구성과 활용에 있어 기능의 전문성 즉,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과 교육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및 활용보다 이용자 간 또는 교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기능만을 강조할 경우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목적과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서비스 간 연계보다 각종 장비와 공간 등의 물리적인 요소의 지원에 집중할 경우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보조자 및 관리자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서비스 및 공간에 대한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에 기초한 본질적인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의 경우에도 '문화공간'의 제공 및 개방이라는 차원보다 '학문적 공간'의 공동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서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복합공간'이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간적 의미와 함께 매체와 매체 간, 그리고 매체와 서비스 간, 매체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서비스 간 적절한 연결과 유기적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물장서를 위한 공간과 가상공간을 사서에 의한 서비스와 연계시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사서의 역할 및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위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의 확보 및 배치는 공간의 구상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사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용자의 동선에 자연스럽게 관여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즉, 통합서비스 공간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내부의 공간을 재조정할 때 사서의 위치가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자 접근의 편의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활용은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현재와 같이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기보다 학습과 토론이 중심이 된 '복합학습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 사색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

창조공간'을 지향하는 것³⁰⁾이 정보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의미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을 개별화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의미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결 론

최근 대학도서관은 첨단 문명의 편리성 추구하고 도서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명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신축이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IT 공간, 교육 및 연구 공간, 문화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재구성에 있어 문화적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와 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내 문화적 기회제공을 위한 주관부서의 부족과 문화공간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역할의 확대가 자칫 더욱 고도화된 전문성의 확보와 서비스 역량을 키워야 할 대학도서관의 근본적 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공간 배치 및 개선의 문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라는 대학 도서관 본연의 역할 확장이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활용 및 배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친 복합문화공간의 지향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본질적 목적과 사서의 역할이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있다.

둘째, 장서 측면의 경우 전자매체의 증가와 접근패러다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전자매체에 대한 편의성 추구하고 실물장서의 적절한 연계 및 조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셋째, 사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용자 공간의 제공 및 확장에 치중함에 따라 사서가 공간 관리자 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다.

넷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이 이용자의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요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배치를 위해서는 공간에 기반한 외형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건물의 효율성과 공간을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연계성, 관리적 편의와 업무적 편의, 그리고 서비스적 편의를

30) 김휘출, "신축대학도서관의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2011 KORS(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워크샵자료집.

의미하는 편의성, 그리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대학도서관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의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공간의 제공이 아닌 인력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되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서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실물장서를 위한 공간과 가상공간의 적절하게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서의 역할 및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간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용자의 동선에 자연스럽게 관여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 및 기능의 수용과 도서관의 정체성 확보, 그리고 정보서비스 제공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수영. “대학도서관 신축 사례 및 과제.” 국회도서관보, 47권, 제9호(2010), pp.10-17.
- 곽동철.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 강화 방안.”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관리자세미나(2007. 7. 4~6),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 김은지, 이한솔, 최원실.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 확장 및 통합필요성에 관한 연구.” 제1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 김휘출. “신축대학도서관의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2011 KORS(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워크샵자료집.
-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4호(2009), pp.205-222.
- 성기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pp.49-65.
- 이상호. “도서관,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9호(2010), pp.2-9.
-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2호(2012), pp.133-150.
- 전명숙. “21세기 도서관, 정보센터 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pp.291-301.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pp.67-87.

_____.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pp.201-221.

_____. “Information Commons기반 하이브리드(Hybrid)도서관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2009), pp.59-73.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7호(2007), pp.107-11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2010.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1 회원교편람. 서울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1.

J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j.ac.kr/guide/Static.ax?page=Sub6105>> [인용 2002. 4. 17].

K대학도서관 대출권수 조정 안내 <http://library.korea.ac.kr/bbs/content/100_48966> [인용 2012. 4. 25].

S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ungkyul.ac.kr/SKLIB/>> [인용 2002. 4. 17].

S대학도서관의 대출권수 조정 안내.

<http://library.sogang.ac.kr/bbs/content/1_800?pn=17&> [인용 2012. 4. 23].

Y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yonsei.ac.kr/main/sub.do?menuCode=0002>> [인용 2002. 4. 17].

Beatty, Susan and Peggy White. “Information Commons : Models for eLiteracy and the Integration of Learning.” *Journal of eLiteracy*, Vol.2(2005), pp.2-14.

Bennett, Scott. “Libraries and Learning: A History of Paradigm Change.”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Vol.9, No.2(2009), pp.181-197.

Cowgill, Allison, Joan Beam and Lindsey Wess. “Implementing an Information Commons in a University Librar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7, No.6(2001), pp.432-439.

Oakleaf, Megan.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 A Comprehensive Research Review and Report*.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0.

Woodward, Jeannette A.. *Creating the Customer-Driven Library : Building on the Bookstore Model*. Chicago : ALA, 2005.